

## 교수 되어 돌아온 '두메산골 미국 소녀'

**유타대 토레이(한국명 대명숙) 교수**  
성공회 신부 아버지 따라 태백 생활  
초등생 때 『소년중앙』에 사연 실려

“영어 번역문으로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잘 모르던 한국 문화를 한국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통해 이해할 때 보람을 느껴요. 예컨대 미국 학생들에게 작가 이상의 ‘날개’를 놓고 토론을 시키면 아주 흥미로워 해요.”

지난 25일 전주대 캠퍼스에서 만난 미국 유타대 세계언어·문화과 드버니아 토레이(51·사진) 교수의 말이다. 다음달 5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그는 이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주최한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유학과 천주교의 대립에 위치한 조선 여성의 주체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동·서양 문화 사이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선교사 자녀로서 천주교가 조선 여성에 미친 영향에 관심 있다”며 “내 영혼의 절반은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의 한국 이름은 대명숙(戴明淑)이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인 사제’로 알려진 고(故) 대천덕(미국명 루벤 아처 토레이, 1918~2002) 성공회 신부다. 1965년 가족을 이끌고 강원도 태백의 외딴 산골에 들어가 ‘예수원’을 설립하고 산비탈을 개간해 한국의 대표적인 수도원 공동체로 키워낸 인물이다.

그는 “아버지는 성직자로서 영성의 힘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에 대한 책임과 정의도 강조했다”고 회상했다. 그 자신도 85년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19년간 ‘강원도 토박이’



로 자랐다. 전교생이 100여 명인 산골 분교를 다녔던 토레이 교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 수학여행을 따라 갔다가 『소년중앙』에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두메산골의 미국 소녀’라는 제목이었다. 그 뒤 한 달 넘게 매일 10통 넘는 팬레터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한국의 변화에 대해 “어릴 때 본 한국의 시골은 밭과 장터에 곡식과 과일 종류가 다양하고 풍경도 입체적이었다”며 “요즘은 중소도시를 가도 그 지방의 특색은 안 보이고 똑같은 체인점과 편의점, 아파트가 즐비해 단조롭다”고 아쉬워했다.

미국 학생들에 대한 교수법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혜경궁 홍씨가 지은 ‘한중록(閑中錄)’ 중 홍씨가 결혼할 때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두 장면만큼은 꼭 발췌해 읽게 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두운 얘기지만 한국 사회의 관습과 규율에 얽힌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는 “미국 학생들이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도록 새로운 자극과 감동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의 유대인 남편도 같은 과 교수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학술대회 참석차 내한한 故 대천덕 신부의 딸 토레이 교수

# “한국의 문화와 문학 더욱 알리겠다”

강원도 태백서 유년시절 보내  
19세 때 미국으로 가 박사학위  
유타대서 한국어·문학 가르쳐  
“내 마음 속엔 늘 한국 정서가득  
‘동서양의 고전 읽기’ 등 전파할 것”

“내 마음속에는 늘 한국의 정서가 가득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문학을 더욱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전북 전주대를 찾은 드버니아 토레이(50·여) 미국 유타대 교수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이었다. 그는 이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주최한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전주를 방문했다.

토레이 교수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미국인 사제’인 고(故) 대천덕(미국명 루벤 아처 토레이, 1918~2002) 신부의 딸이다. 대천덕 신부는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평양에서 청소년기를 난 뒤,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39세에 한국으로 나와 10년 가까이 성공회대의 원장으로 봉직했다. 1965년 가족을 이끌고 강원도 태백의 산골로 들어가 ‘예수원’을 설립, 산비탈을 개간해 한국의 대표적인 수도원 공동체로 키워냈다.

그의 둘째 딸인 토레이 교수의 한국 이름은 명숙(明淑)이다. 강원도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 4학년 때 졸업반 언니들의 서울 수학여행을 따라 갔다가 눈에 띄어 한 잡지에 ‘두메산골의 미국소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크게 실렸다. 이후 거의 한 달간 매일 10~20통의 팬레터를 받았다.

그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을 찾아 19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박사학위를



드버니아 토레이 교수가 지난 25일 전주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를 마치고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문학을 더욱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받고 현재는 유타대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남편도 같은 대학 같은 과 교수다.

“단편소설을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허생전·양반전처럼 사회 풍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고전소설이나 ‘매밀꽃 필 무렵’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등도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1~2년에 한 번은 한국에 온다는 토레이 교수는 “한국사회는 발전과 변화의 속

도가 정말 빠르다”며 “주거 개선과 생활 편리 측면에서는 이해하지만, 시골의 풍광과 정취가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5일 출국 예정으로 현재 고향 강원도를 여행 중인 토레이 교수는 27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한국을 오가며 ‘동서양의 고전 읽기’ 등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 “내 영혼 뿌리내린 한국 문학작품을 알리는 데 앞장”

**토레이 美유타대 교수**

삼척에서 자라 스무살에 미국행  
국제학술대회 참가 위해 방한  
“독특한 시골 풍광 사라져 아쉬워”

“내 영혼이 뿌리내려져 있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학작품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드버니아 토레이(50·사진) 미국 유타대 교수는 지난 25일 전주대 교정에서 “자연과 어울려 아가자기한 맛을 지녔던 시골마을에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고, 정겨운 흙길의 시멘트로 뒤덮이는가 하면, 중소도시는 빌딩·편의점 등이 일률적으로 들어서 지역적 특색을 잃는 것 같다”며 “주거환경과 생활의 편리 측면은 이해하지만, 시골의 독

특한 풍광과 고유의 정취마저 사라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주최한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방문한 토레이 교수의 한국이름은 대명숙(戴明淑)이다. 한국 교수들이 감

탄할 정도로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갖춘 그는 19세까지 강원도 두메산골의 ‘금발머리 소녀’였다. 아버지가 바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미국인 사제’로 널리 알려진 대천덕(미국명 루벤 아처 토레이·1918~2002) 성공회 신부이기 때문이다.

2002년 한국에서 운명한 대천덕 신부는 평양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미국으로 건너

가 프린스턴신학교를 졸업한 뒤 39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10년 가까이 성공회대에 봉직했다. 이후 1968년 가족들을 이끌고 강원도 태백의 외딴 산골로 들어가 ‘예수원’을 설립, 산비탈을 개간해 한국의 대표적인 수도원 공동체를 키워냈다. 이 생활을 바탕으로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토지와 경제정의’ 등 10여권의 저서를 남겼다.

토레이 교수는 “강원 삼척시 하장면 우리 동네는 서울에서 기차로 6시간, 읍에서 마을버스 1시간을 탄 뒤에 내려 다시 20분 이상을 걸어야 집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험준했다”며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도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고 회상했

다. 작은 산골 분교를 다니던 미국 소녀가 주목을 받은 것은 4학년 때, 졸업반 언니·오빠들의 서울 수학여행을 따라 갔다가 신문에 ‘두메산골의 미국소녀’라는 기사가 실리고, 한 달간 매일 10~20통의 편지가 전국에서 오면서 친구들의 부러움과 시샘을 받기도 했다. 그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1985년 태평양을 건넜다. 이후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 현재는 유타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유대인인 남편도 같은 대학, 같은 과 교수다.

다음달 5일 미국으로 돌아가는 토레이 교수는 “허생전과 양반전 처럼 사회 풍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고전소설이나 ‘무녀도’ ‘메밀꽃 필 무렵’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 독특함과 깊이, 보편성을 함께 지닌 작품을 좋아한다”며 “한국사랑을 한국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것을 통해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박경우 기자

